

## 외래진료센터 개소식

외래진료센터(3관) 개소 통해 최상의 의료환경 제공  
국가지정 음압 입원치료병상(5병상) 운영 통해 지역민 건강수호

2월 8일 오전 10시 30분 병원 외래진료센터(3관) 1층에서 '조선대학교병원 외래진료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강현욱 조선대학교 이사장을 비롯해 조선대학교 강동완 총장, 서재홍 전 총장, 이주현 총동창회장과 권은희 국회의원(광주 광산을),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 윤택림 전남대병원장, 최영준 광주 MBC 사장, 김진오 광주CBS 본부장, 김형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 등이 대거 참석했다.


병원의 부족한 외래공간 및 병실 등을 확충해 쾌적하고 편안한 진료 공간과 한 단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된 조선대병원 외래진료센터는 2015년 4월 기공식을 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2016년 12월말 완공되어 외래를 이전하고 진료를 개시했다.

지하2층, 지상4층 3,000여평 규모의 외래진료센터(3관)에는 당뇨센터를 비롯해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9개 진료과를 비롯한 응급중환자실, 응급병동 등 다양한 의료 인프라가 갖춰져 최상의 의료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환자안전법 시행과 감염관리 강화 정책 등 의료 질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현 시기에 발맞춰 예상하지 못한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질환에도 적극 대비하기 위해 국가지정 음압 입원치료병상(5병상)과 격리 병실을 갖췄다.

이밖에 일부 외래가 이전한 병원 본관의 공간도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환자를 위한 편안한 치유 시설과 진료센터 및 클리닉 중심의 진료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더 밝은 병원으로의 재탄생을 준비하고 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2017년 3월 1일 운영  조선대학교병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개소

3월 10일 오전 11시 30분 최근 문을 연 외래진료센터(3관) 4층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개소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는 이상홍 조선대병원장, 김상채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본부장을 비롯해 100여 명의 병원 교직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내과(종양혈액내과,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알레르기내과)환자를 대상으로 75병동(46병상)을 전용병동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조선대병원

은 간호사 31명과 간호조무사 5명, 간병지원인력 1명 등 총 37명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전산 시스템, 입·퇴원 절차, 세부 운영 매뉴얼 등 시스템을 정비해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전 병상에 전동침대를 설치했고, 환자 침대에 낙상방지 감지센서매트를 설치해 침대에서 환자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알려주는 모니터링 장치와 알람이 간호사에게 전달되는 낙상감지 시계도 도입했다.

또 목욕 의자 및 침대, 전 병실 화장실과 샤워

시설, 휴게실 등을 갖춰 환자안전과 편의를 강화했으며, 각종 안내문을 제작해 병동에 비치하여 환자들이 보호자 없이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상주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24시간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병동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 캄보디아 광주진료소 해외의료봉사(2017.2.14~2.19) ○



올해에도 캄보디아에 사랑의 인술을 행하기 위해 의료봉사단이 결성되었다.



현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소화기내과, 치과, 안과의 의사와 약사, 간호사, 방사선사, 행정 등 총 30명이 따뜻한 마음을 품고 위대한 원정길에 발을 내딛었다.



캄퐁스푼 악피왓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기증품 전달과 학교의 낡은 벽에 페인트 옷을 입혀주고 헤브론병원에 의료물품 기증 및 무료수술을 제공했다.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이 아른아른~



같은 시각, 캄보디아 광주진료소에서는 몸과 마음의 치유를 얻기 위해 내원한 현지인들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진료와 함께 옷과 신발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받은 감사의 인사와 행복한 미소에 더욱 힘을 낸다. "어른 쯤란!!(정말 감사합니다!!)"



조선대병원 의료봉사단은 현지인들에게 사랑과 온정을 베풀고 소통하여 평생 잊지 못할 친구가 됐다. 우리가 다시 올때까지 건강하렴!!



## 조선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지역민 건강수호 모범 센터 ‘자리매김’

조선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가 2015년과 2016년 모두 의약품 부작용보고 충실도 99.9%로 전국 27개소 중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의약품 부작용보고 충실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 ‘사업 협조 우수자’로 선정됨에 따라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도 안았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약물 부작용 신고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약물사용을 위해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조선대병원은 2011년부터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다. 조선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지역 거점으로서 병원 내 약물유해반응 사례의 체계적 수집과 평가 및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절차를 통해 의약품의 효능 및 안전성에 관한 정보가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를 포함한 원내 의료진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 원내 프로그램 개발과 수정을 통해 보고의 양적, 질적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의료기관과 지역약국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약물감시의 필요성과 현황 및 필요성, 이상반응 보고방법 등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조선대병원 전공의, 가벼운 발걸음 ‘퇴근길’



조선대병원 전공의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퇴근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전공의 법) 소위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되어 수련병원들은 전공의와의 수련계약 기준을 지켜야 한다.

특히, 올해 12월부터는 주 80시간의 수련시간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조선대병원은 주 80시간 수련시간을 법 시행보다 9개월 앞선 이달 3월부터 전공의 법 시행 시스템에 맞춰 도입·운영하고자 전 구성원이 노력하고 있다.

아직은 시행 초기라서 일부 전공의가 퇴근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스템이 정상화되면 더 많은 전공의가 퇴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회진 및 컨퍼런스 시간을 조정하고 당직체제를 전환하는 등 시스템상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 80시간 수련시간 도입으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수 및 전임의 채용 및 당직, 입원전담전문의제, 진료보조인력(PA) 등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전공의들이 퇴근 이후에 자기시간을 갖고 휴식을 취함으로써 수련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나아가 환자안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몽골 전공의 “고난도 수술 척척 해내는 팀워크 잘 배우고 갑니다”



이번 제3기 1차 몽골 연수전공의 만다호나르(흉부외과), 바이르바타르(비뇨기과) 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조선대병원에서 실시한 전공의 연수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하고 17일 수료식을 가졌다.

연수전공의들은 지도교수(서홍주 흉부외과 교수, 임동훈 비뇨기과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의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았다.

외래 및 입원 진료뿐만 아니라 수술실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며 기술과 노하우를 배웠고, 여러 케이스의 환자들을 보며 그에 적절한 시술과 진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떠한 결과가 발생하는지 등 관련사항을 꼼꼼히 익혔다.

몽골 연수전공의들은 “수술실에서 지켜본 조선대병원의 수술 실력은 하나같이 대단하다”며 “아무리 어려운 수술도 척척 해내는 의료진들의 팀워크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의료진과 직원 모두가 친절하고 가족같이 대해주어서 감사했고 타지에서 생활이 외롭거나 힘들지 않고 항상 웃으며 기분 좋게 생활했다”며 “조선대병원은 해외 의학자들이 연수 오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전했다.

## 병원 전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병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병원 교직원들에게 ‘4분의 기적’이라 불리는 골든타임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직원들이 응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1월 5일을 시작으로 24일까지 총 6회 걸쳐 진행했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영상과 함께 박용진 응급의학과 교수가 응급구조사들과 함께 직원들에게 심폐소생술 및 AED(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다양한 상황별 대처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에게 골든타임인 4분 안에 시행을 하는 경우 생존율이 90% 이상이기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  
칼럼

## 사시는 어릴 때 치료해야.....



사시란 우리 눈의 위치가 똑바르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사팔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사시는 한쪽 눈이 밖이나 안으로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밖으로 틀어져 있으면 외사시라고 하고 안으로 틀어져

있으면 내사시라고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의 동양에서는 외사시가 많고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서양에서는 내사시가 많다. 외사시는 보통 간헐 외사시의 형태로 발생해서 진행하면 항상외사시로 변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어린 소아에서 처음 나타난다. 보통 2세에서 4세 사이에 잘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내사시는 외사시보다 좀 더 어린 나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영아내사시는 생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다.

사시는 어릴 때 조기발견해서 적절한 관리를 해주어야 성인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사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근시, 원시, 난시 및 약시 등이 동반되어 있으면 이를 교정해주어야 하는데 이들 질환들은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교정을 해주어야 효과가 좋다. 또한, 적절한 시기에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 하는데, 역시 사시를 빨리 발견해서 적절한 관리를 시행한 후에 수술을 해야 수술결과도 좋다.

사시를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시를 어릴 때 교정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 입체시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많다. 요즘 같은 3D시대에 꼭 필요한 기능이 입체시 기능인데 어릴 때 사시가 있으면 세상을 3차원적으로 보는 능력이 잘 발달하지 않는다. 또한 독서나 스마트폰, 컴퓨터를 볼 때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책이나 컴퓨터의 글씨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한 후 사시가 심해지고 복시가 발생한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미용적으로도 사시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다. 상대방을 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즉 사시를 가지고 있으면 대인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듯 사시는 어릴 때 발견하고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들의 관심이라고 생각된다. 아이들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주 관찰해야 눈의 위치가 올바른지 또는 문제가 있는지 발견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세밀한 부모의 관심과 관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더불어 최소한 2세에서 3세가 되면 병원에 데려가 사시가 있는지 검사를 시행하고 기타 동반된 약시나 근시, 원시 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부모로써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특히 우리 아이들이 좋은 눈을 가지고 평생 좋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무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안과 김대현 교수

## ‘조선대학교 어린이집’ 원아들의 깜찍한 방문 세배

1월 23일 조선대병원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조선대학교 어린이집 원생들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세배 인사와 직접 만든 쿠키를 준비한 것이다.

다소곳이 한복을 입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세배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예쁘고 사랑스러웠다.

이상홍 병원장은 “건강하게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고 세배를 한 아이들에게 덕담과 함께 세뱃돈 복주머니를 건넸다.

2014년 8월말 문을 연 ‘조선대학교 어린이집’은 대학 캠퍼스 내에 위치해 있으며, 조선대학교와 조선대병원 가족의 복지 증진과 육아부담 완화, 근로환경 개선, 저출산 대책 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



## ‘실전 같은 훈련’ 신종감염병 차단 이상무

대응체계 점검결과 합격점

국가지정 음압입원치료병상(5실 5병상) 가동에 맞춰 지난해 12월에 1차례 올해 1월에 2차례의 ‘신종감염병 발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모의훈련은 ▲환자발생 ▲환자과약 및 비상연락망 가동 ▲이송준비 및 환자이송 ▲국가지정 음압입원치료병상(신축건물 지상4층) 환자입실 ▲환자 입원 후 치료 ▲소독 등 현장정리 등 6개 파트로 나뉘어

실제 상황과 동일한 과정으로 실시하며 숙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지난 1월 13일에 있었던 모의훈련은 질병관리본부, 광주시, 동구보건소 및 인천의료원, 전남대병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동구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에 도착한 신종감염병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치료, 지역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였다.

훈련 후에는 병원 2층 하종현홀에서 ▲환자발생 의료기관 대응 점검사항 발표(김동민 감염관리실장) ▲현장진행 상황 리뷰 및 평가 ▲총평(오창현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장) 순으로 진행하며 감염병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해외재난 의료지역 국가대표 병원으로 선발

- 보건복지부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협약 체결
-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국가대표 병원으로 선발



조선대병원이 네팔 지진과 같은 해외재난 발생 시 대한민국을 대표해 현지에서 파견돼 보건의료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2월 21일 오후 4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의료지원팀' 선발과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전국 40개 재난거점병원 중 조선대병원을 비롯해 경북대병원, 명지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인하대 의과대학부속병원, 충북대병원, 한림대의료원 등 총 8개 의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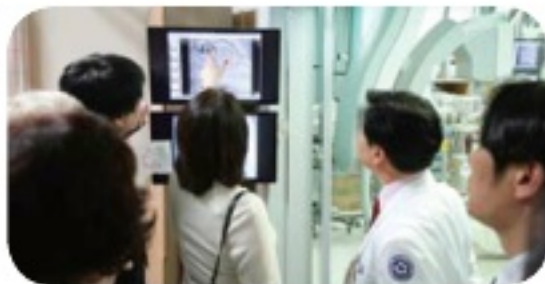
이 참여했는데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는 조선대병원이 유일하게 선발됐다.

이는 그동안 필리핀 태풍('13.11월), 네팔 지진('15.4월)-전국 2번째로 파견, 인도네시아 지진('16.12월) 등 해외재난 발생 시 발 빠르게 긴급 의료지원단을 현지로 급파해 피해국가 국민들을 위해 따뜻한 의료의 손길을 내밀어 온 조선대병원의 사랑과 봉사정신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협약을 체결한 대표 의료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추천받은 인력풀로 의료지원팀을 꾸려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발생 후 72시간 내 현지로 도착하여 의료구호활동에 나서게 된다.

## 광주시와 조선대병원, 러시아 '의료 한류' 이끈다

- 러시아 부리야트 보건부·의사협회 임원 일행 광주시 방문
- 해외 의료진 사이에서도 관심 집중... 광주 의료관광 활성화 동력 마련



조선대병원이 광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해외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러시아 동시베리아에 위치한 부리야트 자치공화국 지역의 보건부 임원, 의사협회 회장, 병원장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광주시를 방문해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첨단의료와 관광·문화자원을 둘러봤다.

이번 러시아 부리야트 광주 방문은 조선대병원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광주광역시와 (사)광주권의료관광협의회의 도움으로 진행됐다.

러시아 연방 부리야트 자치공화국은 한국의 기관이나 병원들과 교류가 많지 않고 인구는 많은데 의료기관은 적어 진료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바이칼 호수 등의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예술과 문화가 발달해 있어 광주·전남 지역의 의료 및 자연생태 산업 교류뿐만 아니라 국립아시아문화전

당과의 문화예술 교류도 기대되는 지역이다.

2월 22일 오후에 조선대병원을 방문하여 보건의료 분야 교류 및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응급의료센터, 하이브리드 혈관센터, 암센터, 종합건강증진센터, 외래진료센터 등 첨단 의료장비 및 시설과 선진 의료시스템을 견학했다.

Balkhanov Bair Sodnomovich 부리야트 의사협회 회장은 "지난해 한·러 연수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2차례 총 5명이 조선대병원에서 연수를 받았는데 연수후기가 너무 좋아 희망자들이 다수 대기 중이다"면서 "조선대병원을 통해 부리야트의 의료수준이 향상되기를 희망하며 많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말했다.

## 무지개병원과 진료협약 체결

2월 3일 병원 10층 회의실에서 무지개병원(대표원장 정순일, 광주 서구 경열로)과 진료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선대병원 이상홍 병원장, 소금영 부원장과 무지개병원 정순일 대표원장, 최홍민 원장, 정순방 행정부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환자진료를 위한 협력은 물론 의학정보 및 교육 교류, 진료 후 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 백운요양병원과 진료협약 체결



백운요양병원(병원장 김진우)과 1월 13일 진료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환자의뢰 및 회송, 최신의학정보 교류를 통해 긴밀한 협진체계를 유지하여 지역민의 의료보건 향상 및 지역사회 의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양 병원은 ▲환자진료와 임상교육을 위한 인적 및 기술적 지원 ▲임상 및 기초분야 공동연구 및 학술지원 ▲의학정보 교환, 진료 후 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지원하고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 캐나다 캘거리대 부속 풋힐병원 외상센터 연수기

조선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이준영 교수

골절 치료의 세계적인 연구재단인 AO 재단에서 선정한 연수 프로그램에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최근에 2주간 캐나다의 캘거리대 부속 풋힐병원 외상센터를 체험하고 돌아왔다.

캘거리는 캐나다 알버타 주 남부에 위치하고 인구 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광주와 비슷한 규모의 도시이다. 특히, 캘거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나다 록키산맥과 차로 1시간 반 정도로 인접해 있고 여름에는 평균 섭씨 23도의 따뜻하고 평안한 기후이며, 겨울의 평균 기온은 섭씨 0도라고 하는데 이는 "시눅(Chinook)"이라는 놀새바람이 록키산맥을 넘어 불어와 캘거리를 따뜻하게 해준다고 한다.

2012년 캐나다의 문화수도로 지정된 캘거리는 의료혜택, 사회 기본 시설, 문화와 오락 등의 이유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다섯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한국에서는 캘거리로 가는 직항이 없어 보통 밴쿠버를 경유한다. 인천에서 밴쿠버까지는 9시간 30분이 소요되고 밴쿠버에서 캘거리는 한시간반 정도가 소요된다.

도시는 친근하고, 깨끗하며,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정부 지원의 의료보장제도를 갖고 있으며, 수준급의 캘거리 대학의 부설 풋힐 병원이 있다.

나를 초청한 Richard Buckley 교수는 한때 캘거리를 호령했던 미식축구 선수라 그런지 키도 크고 손이 무척 큰 게 인상적이었다. 그는 한국의료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었으며, 빠른 정보처리 속도와 한국 의사들의 부지런함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곳 외상센터의 아침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게 시작한다. 수술실은 3층에 위치하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3개가 위치해 캘거리 전역에서 오는 외상 중환자들을 처치하고 치료한다. 컨퍼런스는 오전 6시 30분에 시작하며 외상을 담당하는 교수와 전공의 그리고 연구원과 간호사 등 20여명이 한 방에 모여 환자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특징적이었다.

Buckley 교수는 친절하고 정중하였다. 심지어 수술 적응증도 종이에 직접 써주며 나와 토론을 하였으며, 재활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참 인상적이었다.



캐나다 외상센터의 정형외과 시스템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월마트에 진열된 긴 식품품 진열대처럼 수술기구가 풍족하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의료진의 유기적인 협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여러 종류의 골절 케이스를 접하며 서로 토론하며 그들의 치료 기법을 보고 접할 수 있었던 이번 2주간의 단기연수는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내게 활력과 자극을 주었던 좋은 경험이 되었으며, 이번 연수를 다녀올 수 있게 해준 병원 원장님과 정형외과 의국원 선생님들에게 지면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꼭 남기고 싶다.

## 조선대병원 광주금연지원센터, 우수등급기관 선정



조선대병원 광주금연지원센터가 보건복지부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실시한 2016년 지역금연지원센터 최종성과 평가에서 우수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등급기관 평가는 목표달성도와 수행방법, 관계기관과의 연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이뤄진다. 금연사업 추진실적이 향후 사업 내용과 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실시하고 있다.

광주금연지원센터는 평상시 센터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대상으로 야간상담을 운영하고, 병원 로비에 상담데스크를 설치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 류마티스내과 김윤성 교수, 한미수필문학상 장려상 수상



조선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김윤성 교수

류마티스내과 김윤성 교수가 '제16회 한미수필문학상' 장려상에 선정됐다.

김윤성 교수는 '조금은 특별했던 이별'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면서 느꼈던 감동을 잔잔하게 묘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한미수필문학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의사들의 신춘문예로 알려진 한미수필문학상은 따뜻한 의료 환경에서 날로 멀어져가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2001년 제정되어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의료계 대표 문학상이다.



## 2017년도 상반기 신임 교수 & 전임의 임용

### 2017년도 상반기 신임 교수



- **신경과 정지연 교수** (치매, 어지럼증, 두통)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전남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졸업
  - 조선대학교병원 신경과 전임의



- **영상의학과 선현주 교수** (흉부영상, 유방영상)
  - 전남대학교 의학과 졸업
  - 전남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사학위 졸업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전임의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전임강사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조교수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부교수

- **핵의학과 정아리 교수** (핵의학, 동위원소치료)
  -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전남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졸업
  - 전남대학교병원 핵의학과 전임의
  - 전남대학교병원 핵의학과 임상진료교수
  - 조선대학교병원 핵의학과 전임의
  - 조선대학교병원 핵의학과 임상전문교수



- **외과 신민호 교수** (신장이식, 간절제)
  - 조선대학교 의학과 졸업
  - 조선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졸업
  - 서울아산병원 간담도 및 간이식 외과 임상강사
  - 조선대학교병원 간담도 및 이식외과 임상전문교수



- **순환기내과 김성수 교수**  
(부정맥, 고혈압, 심부전증, 심혈관질환)
  - 전남대학교 의학과 졸업
  - 전남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졸업
  -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전임의
  -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임상교수
  - 광주기독병원 순환기내과 진료과장



- **가정의학과 김상철 교수**  
(만성피로, 노화방지, 기능성 장질환, 급·만성질환, 맞춤형 영양처방)
  -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대체의학과 졸업
  - 조선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사학위 졸업
  - 베스트닥의원 원장
  - 서남대학교 의학과 조교수
  - 미국 메이요클리닉 완화의학, 위스콘신대, 노스다코타 주립의대 가정의학과 통합의학 연수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
  - 조선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임상전문교수

- **순환기내과 기영재 교수**  
(심장판막질환, 고혈압, 심혈관질환)
  - 조선대학교 의학과 졸업
  - 조선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졸업
  - 조선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전임의
  - 성가톨릭병원 순환기내과 과장



### 2017년도 상반기 신임 전임의

과별	이름	전문 분야
순환기내과	김현욱	순환기계 질환
감염내과	설 형	감염병, 열병
소화기내과	이준형	소화기질환
소화기내과	백대업	소화기질환
호흡기내과	나용섭	폐암, 중환자의학, 결핵, 폐렴 등
내분비내과	안희정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이비인후과	김연후	일반 이비인후과
외과	김민성	상부 위장관 외과
외과	김영훈	하부 위장관 외과
응급의학과	한대근	응급의학
안과	신광래	사시, 백내장, 일반안과, 안외상

과별	이름	전문 분야
정형외과	김보선	정형외과 질환, 외상골절, 고관절
정형외과	박이규	골절, 외상, 척추
영상의학과	윤은주	복부영상, 유방영상
안과	송용주	녹내장, 백내장
소화기내과	김성중	전문소아구조술, 사회응급의학
신장내과	박하열	신부전증, 사구체신염
신경과	최판규	뇌졸중, 두통
정형외과	김주한	정형외과 질환
정형외과	박성해	정형외과 질환
신경외과	서종훈	목디스크
피부과	최 훈	피부과 질환



병원  
소식

## CHOSUN UNIVERSITY HOSPITAL



## 집행부 보직인사 (2017.3.3.일자)



부원장 / 소화기내과 박찬국 교수



기획실장 / 응급의학과 김성중 교수



대외협력실장 / 정형외과 이준영 교수



교육연구부장 / 신경외과 김석원 교수

## ☺ 2016년 4분기 손 위생 우수직원



- ▶ 최우수상(3명) - 내과 박상곤 교수, 내과 이영민 전공의, 특수부서간호팀 정희영 간호사
- ▶ 우수상(5명) - 응급의학과 안수환 전공의, 교육연구부 양영준 인턴, 병동간호2팀 신금석 간호사, 병동간호2팀 김석현 간호사, 외래간호팀 안윤희 간호사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휴먼 네트워크

CU Again 7만2천

여러분이 **건학 100년**의  
새로운 주인공입니다.

CU Again  
7만 2천  
발전기금 모금사업

조선대학교병원 기부금  
TEL 062-220-0000 / FAX 062-220-0007  
E-MAIL: 220@chosun.ac.kr (내선 2번) / 220@chosun.ac.kr (외선 2번)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외래진료센터 건립 발전기금 모금캠페인

★ 참여방법 : 10만원 이상 참여 가능하며, 입금 후 기획실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 납부방법 : 온라인입금 또는 직접 납부

- 온라인입금계좌

광주은행 002-107-000819, 예금주 : 조대병원

농협중앙회 605-01-009496, 예금주 : 조대병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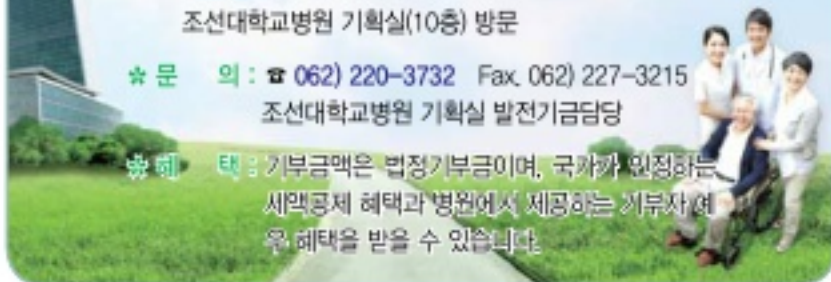
- 직접 납부

조선대학교병원 기획실(10층) 방문

★ 문 의 : ☎ 062) 220-3732 Fax 062) 227-3215

조선대학교병원 기획실 발전기금담당

※ 해택 :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이며, 국가가 인정하는  
세액공제 혜택과 '병원에서 제공하는 기부자 예  
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선대병원 기부금 약정현황 (2017. 1. 1. ~ 2. 24.)

(단위: 원)

번호	소 속	성 명	약정금액	누 계
1	병원장	이상홍	1,800,000	26,900,000
2	정형외과	손홍문	1,000,000	29,100,000
3	소아청소년과	이재희	1,000,000	1,000,000
4	이비인후과	최지윤	1,000,000	6,047,600
5	소화기내과	정 윤	1,000,000	3,073,800
6	외 과	김영훈	1,000,000	2,995,800
7	간호부	강혜경	1,000,000	9,492,600
8	간호부	유미옥	1,000,000	7,782,950
9	간호부	박소현	1,000,000	5,046,110
10	간호부	김민지	1,000,000	2,250,270
11	간호부	심혜민	1,000,000	2,401,300
12	약제부	강민구	1,000,000	1,961,000
13	영상의학팀	차장원	1,000,000	3,197,950
14	영상의학팀	장종우	1,000,000	2,797,110
15	대외협력실	문봉주	1,000,000	16,060,700
16	대외협력실	양명훈	1,000,000	1,000,000

번호	소 속	성 명	약정금액	누 계
17	대외협력실	이 경	1,000,000	7,222,260
18	대외협력실	남궁진	1,000,000	4,390,920
19	종합검진센터	송연옥	1,000,000	9,340,140
20	총무부	박상현	2,400,000	9,800,300
21	학 생	변재희	1,300,000	1,300,000
22	학 생	조세명	1,300,000	1,300,000
23	학 생	이빛나	1,300,000	1,300,000
24	학 생	엄선형	1,300,000	1,300,000
25	학 생	이연화	1,300,000	1,300,000
26	학부모	최숙희	1,300,000	1,300,000
27	일반인	모영숙	1,300,000	1,300,000
28	일반인	이 은	1,300,000	1,300,000
29	(유)강청	김민우	1,300,000	1,300,000
30	씨엘병원	최병채	1,000,000	1,000,000
31	"만원으로 캄보디아 봉사 참여" 후원금		1,500,000	
합 계			36,400,000	

◆ 조선대학교병원 '외래진료센터' 건립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